

---

2016년 9월 26일 발행 (제9호)

SIG 보고서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 경제는 본래 '사회적'이다 -

---

- 
- 발행일 : 2016년9월26일(월)
  - 발행인 : 양세진
  - 발행처 : SIG.소셜이노베이션그룹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공익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IG.소셜이노베이션그룹©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 경제는 본래 '사회적'이다 -

## 1. 들어가는 말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그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개념이다. 미완적 개념이기도 하고, 미궁의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경제의 한계를 보충하는 보완적 의미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해의 배경에는 자본주의가 경제의 본질이기에 자본주의가 더욱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의 수정, 보완, 강화도 필요하지만, 자본주의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해가는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기 어려운, 혹은 한계가 있는 집단들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게 벌고 적게 쓴다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 2016년8월17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대기업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하고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출처: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경제와 함께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말이다. '다른경제', '대안경제'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경제행위이며, 이러한 접근은 주로 지역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지역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가 균형,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는 지향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사회적경제 지역화전략, 사회적금융으로서 지역금융, 마을금융과 같은 생각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되는 실험과 도전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를 경제의 본질적인 존재방식으로 보는 관점이다. 경제는 본래 '사회적'이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는 사회적경제로서 경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변종이고,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한계와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와는 다른 대등한 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로서 본래적인 경제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자본주의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화하고 인민주권에 의해서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는 입

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이 경제관점은 앙리 르페브르와 칼 폴라니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두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개된 연구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2. 자본주의경제와 다른 경제로서 사회적경제

사과씨의 성과는 맛있는 사과가 되는 것이며, 탁월한 성과가 창출된다는 것은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과씨에게 저 옆에 씨는 수박이 되어서 사과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왜 굳이 사과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수박이 되는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과씨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위한 동기 부여가 아니라, 닭달이고 압박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지금 사회적경제의 현상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가와 활동가들은 여전히 자본주의경제의 패러다임<sup>1)</sup>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차이.** 예를 들어 불도우저와 포크레인으로 성과를 본 건설현장과 달리 농사를 짓는 밭에서는 트랙터와 쟁기가 적정기술이지 더 많은 수확을 위해 불도우저와 포크레인을 사용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이처럼 자본을 토대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경제에 유효한 기술이나 방법을 호혜와 신뢰의 관계망과 협동과 연대의 연결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자본주의경제에서 성과를 본 기술이나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할 수 있는 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선(Good)이라고 여긴다. 엄밀하게는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경제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 ‘생산의 경제’, ‘자기 증식하는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경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모형이고 방식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경제라는 맥락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경제’<sup>2)</sup>의 부분집

1)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합적으로 인정된 ‘모형(model), 유형(pattern)’이다. 현상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의 전문가 그룹이 시급하다고 느낀 몇몇 문제를 푸는 데에 경쟁 상대들의 관점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성공적이라는 말은 단일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공적이라는 것,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동설이 무려 1500년이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동설의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듯이, 패러다임은 해결하고자 하는 현상과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이며, 패러다임은 그 자체를 더욱 명료화시켜가는 과정적 개념이다.

2) 우리는 날마다 되풀이 되는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되풀이 되는 필요 이상을 충

합이지만,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와도 교집합의 영역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갖는 그 고유한 의미, 즉 사회적경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본질적인 의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자본주의경제와 함께 시장경제를 이루는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법적.제도적 관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입법화를 시키지 못했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8월17일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4년에 제일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자치구인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가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아래 <표 1>은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그리고 자치구인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이다.

<표 1>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점 비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기본 정의	일자리 창출 도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정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시장경제와 공공공경제의 조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핵심 가치	호혜와 연대의 지역공동체의 발전, 지역공동체 재생,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재생, 공동체의 이익 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협력과 호혜의 경제(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순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그리고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지원조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핵심가치는 사회적경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

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활용한다. 그렇기에 ‘시장경제’ 자체는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공공성의 담지자로서 열린 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는 ‘규모의 경제’, ‘생산의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거대자본에 의존하며,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제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더 상위 개념의 집합으로 이해한다면, 시장경제라는 집합의 원소로서 자본주의경제, 사회적경제, 선물의경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란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지역의 경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관점은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경제와 독립된 다른 경제로 이해하는 두 번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화’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지역화란 마을단위의 지역으로부터 기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실천주체(주민)의 형성, 각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당사자 주체 역량강화, 지역차원에서 연대(민-민)와 협력(민-관)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지역화란 호혜와 신뢰의 마을관계망이 협동과 연대의 마을경제관계망으로 심화 발전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마을관계망이 마을경제로서 사회적경제화하는 것과 지역의 필연성에 기초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화하는 것은 동근원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지역화란 ‘공간이자 관계망으로서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당사자 주체로서 기업과 소비실천주체로서 주민 그리고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계조직과 중간지원조직)들의 자기돌봄을 토대로 서로돌봄의 관계망과 지역돌봄의 연결망이 상호의존적으로 생기 있게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지역화는 지역안에서 지역을 충만하게 하는 지역생태계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을 대상화하고, 지역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역을 넘어 경쟁전략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경제 지역화는 자기완결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지역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한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볼 문제**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발전을 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마침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의 반쪽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지역화는 본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발전과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리고 동근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현재의 법적 체계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지향은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는 괄호안에 묶여 있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가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점에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나 당사자 기업들이 바라보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들의 삶의 향상’은 부수적인 이슈일 뿐, 본원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행위주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지역화가 지향해야 할 비전에는 행위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 그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삶 자체에 더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들이 지역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안에서 충분한 자기 힘을 생

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을 넘어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편입되는 전략이 갖는 위험과 한계를 염두에 둘 때, 사회적경제는 지역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지역화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전략을 선호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전략이며, 보다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 지역화**란 ‘공간이자 관계망으로서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당사자 주체로서 기업과 소비실천주체로서 주민 그리고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계조직과 중간지원조직)들의 자기돌봄을 토대로 서로돌봄의 관계망과 지역돌봄의 연결망이 상호의존적으로 생기 있게 활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고민의 본질은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역살이의 주체로서 소비실천주체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전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지역화는 자본주의경제의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위치가 아니라, 인간 삶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로서 경제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가열찬 연대와 협동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지역화에 대한 고민은 곧 경제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혁신이란 전환이며, 단순히 새로움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본질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경제의 본질을 본질적으로 캐물음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경제혁신이란 경제의 본질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의 본질을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철저함으로부터 자본주의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지역화라는 본래적인 가치를 더욱 힘있게 생성할 수 있는 실천적 힘을 얻는 것이다.

### 3. 경제는 본래 ‘사회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세 번째 관점인 경제는 본래 ‘사회적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되풀이 되는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되풀이 되는 필요 이상을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과 번영을 위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도시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경제활동은 어디까지나 가정살림의 경제였으며,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고 충족하기 위한 경제였다. 즉, 생산의 경제, 자본의 경제가 아니라 필요의 경제, 살림의 경제 였던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경제의 본질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는 경제를 본래 사회적인 것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폴리스(polis.도시공동체.나라)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무릇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 좋음(agathon.선.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공동체가 어떤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폴리스야말로 분명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러한 폴리스가 바로 폴리스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 (politikos. 플라톤은 이 개념을 ‘정치가’로 사용하여 책을 쓰기도 했음)의 공동체이다. 폴리스가 가족들로 구성되었음이 분명해졌으니, 폴리스에 관해 논하기 전에 먼저 가족에 관해 논해야 할 것이다. 가족을 위한 가사관리(oikonomia.economic)는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획득기술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가사관리라고 생각한다. 가사관리로서 재산 획득 기술(사회적인 것으로서 경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에 관해 고찰해보도록 하자.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재산 획득 기술은 가사 관리와 동일한가, 아니면 그것의 일부인가, 아니면 보조적 수단인가? 그런데 가사 관리는 재산 획득 기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재산 획득 기술은 재료를 제공하고(옷을 만드는데, 양모와 같은 재료의 성질), 가사 관리는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베를을 통해 양모로 옷을 만듦). 그리고 농사 기술은 가사 관리 기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냥이 재산 획득 기술의 하나이며, 어떤 의미에서 전쟁 기술도 본성적으로 재산 획득 기술의 하나이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많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재산 획득 기술은 본성적으로 가사 관리 기술의 일종이다. 그것은 가정과 폴리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산 획득 기술을 통해 얻은 재물과 부는 비축할 수 있는 것들은 넉넉히 비축하는 것이 가정과 폴리스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이 무한히 많을 필요는 없다. 다른 기술들에도 그렇듯이 여기에도 한계가 정해져 있다. 어떤 기술의 도구들도 수와 크기에서 무제한하지는 않으며, 부는 가사 또는 폴리스에서 쓰이는 도구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자급자족을 위한 물물교환은 자연에 배치되지도 않고, 돈 버는 기술의 일부도 아니며, 자연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물물교환에서 돈 버는 기술이 생겨났다. 한 폴리스의 시민들이 다른 폴리스 시민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어 필요한 것은 수입하고 남는 것은 수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화폐가 사용된다. 모든 생필품이 다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거래할 때 무쇠, 은 등 값이 나가고 교환하기 편리한 것을 화폐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처음에 그것의 가치는 크기와 무게로 결정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가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각인하여 무게를 다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화폐가 도입되자 생필품의 물물교환은 재산 획득의 또 다른 형태, 즉 상업으로 발전했다. 어떻게 교환해야 최대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다. 화폐가 도입되면서 재산 획득 기술은 주로 화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어디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내는 기술로 간주된다. 재산 획득 기술과 상업이 화폐와 관계가 있는 만큼, 부는 흔히 다량의 화폐를 소유하는 것과 동일시되곤 한다. 폴리스를 위한 부와 재산 획득 기술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의술이 무한한 건강을 추구하고, 용기가 무한한 자신감을 추구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것들의 수단은 어느 것도 무한하지 않다. 목표 자체가 각각의 기술에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상업을 통한 재산 획득 기술은 비록 무한한 화폐와 부를 추구하지만, 가사 관리에 속하는 재산 획득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사 관리에 있어서도 부와 화폐를 무한하게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51a1~1257b40)

길게 인용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삶, 경제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은 사회적이었으며,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한 도구임을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진부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게 경제의 본질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이해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칼 폴라니 역시 [거대한 전환]에서 자본주의경제를 경제의 본래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왜곡은 인간이 훌륭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생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욕망이 무한하듯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도 무한하기를 원한다. 목적으로서 훌륭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적 향락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자연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용기가 할 일은 재물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의사가 추구하는 것은 건강이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기술을 재산 획득 기술로 전환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고 모든 것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사회적경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경제가 상품화 한 (도시.마을)공간을 투쟁과 행동의 장소로 삼아야 하며,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전복과 극복은 상품과 재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넘어 삶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지역공간을 인간적 삶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상품화되고 교환되는 공간이 아니라 향유하고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마을 공간은 자본주의경제에게는 상품이고 대상으로 전락되지만, 사회적경제는 상품화된 도시.마을 공간을 탈영통화하여 존엄한 인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놀고, 정이들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공유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삶의 조건이자 근거로 재영토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로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넘어서 권력의 주인으로서 존엄한 삶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담지자인 주권자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함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나이, 성별, 계층,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이나 배제 없이 도시공동체의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 주권자인 주체인 것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시민 각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각자도생, 자력갱생의 자본주의경제를 넘어 호혜와 연대, 협동과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우리만 아니면돼를 넘어 도시공동체 전체가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기위해 사회적경제의



비전이 구체적이고 힘있게 현실화되도록 더욱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날마다 되풀이 되는 필요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삶의 수단이자, 도시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경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임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삶을 실천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와 깨물음이 요구되는 길고도 힘든 싸움을 감당해야만 하는 운명속에 놓여 있다.

끝. SIG.